

# 지역작가들의 무대가 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31일까지광주비엔날레전시장)는 첨단기술과 아날로그적 풍경이 어우러진 흥미로운 전시다. 또 환경과 생태 문제, 기계와 인간의 관계 등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예술가와 과학자들의 답을 만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작가들도 다양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미디어 아트, 설치미술, 회화, 공예를 비롯해 인공지능 작곡가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1관 주제전시관의 하안방에 들어서면 아련한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작품 '오월 빛고을 향기'는 '오월 광주'를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향기와 허달재 작가의 그림, 박일구 작가의 사진이 어우러졌다. 코스맥스는 지난 5월 광주시청 인근의 이팝나무에서 향기를 포집한 후 조향 연구를 통해 향을 완성했다. 허 작가가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린 이팝나무 그림과 한반도 남쪽 바다를 색으로 표현한 박 작가의 사진 연작 'The south sea' 시리즈가 어우러진 영상은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영상물과 동근 거울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이남 작가의 'DNA 산수'는 팬데믹으로 혼돈스러워진 현대 사회속에서 온전한 자아를 찾기 위한 존재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당나라 말 시인 사공도의 '이십사시풍

## 허달재·박일구 '오월 빛고을 향기'

김상연·이이남·송은성·양재희도 참여  
설치미술·인공지능 작곡가 등 흥미

중 '충담'과 '옹혼'을 소재로 한 정선의 동명의 작품과 왕희정의 '천리강산도' 등 고전 서화와 작가 자신의 DNA 텍스트가 어우러진 작품을 통해 생성과 소멸에 대해 들려준다.

조선대 교수로 재직중인 한선주 작가의 '봄날은 온다'는 다양한 의자를 만날 수 있는 색션에서 단연 눈에 띄는 작품이다. 섬유공예를 전공한 한 작가는 수미터 높이의 천정부터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붉은 직조물을 통해 코로나 이전의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생각하며 진정한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았다.

'AI관' 3전시관에서 만나는 김상연 작가의 '우주를 유영하는 고래'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작품이다. 작가는 버려지는 세탁용 세제 용기를 고래 모양으로 형상화한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모션 센서를 통해 스크린 속의 오염된 바다 영상과 반응하는 사운드와 붉은 색 라이팅으로 반응하는 AI 기술을 통해 해양 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과학기술을 접목한 작품들도 눈에 띈다.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안창욱 교수 연구팀이 탄생시킨 국내 최초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을 만나는 'Peace of mind'는 관람객이 직접 몇개의 코드를 입력하면 전시실에 놓인 피아노가 음악을 연주해주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AI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기획에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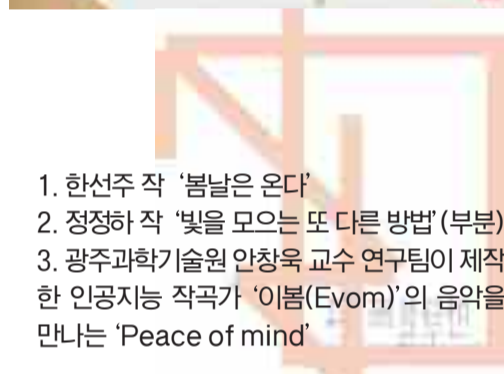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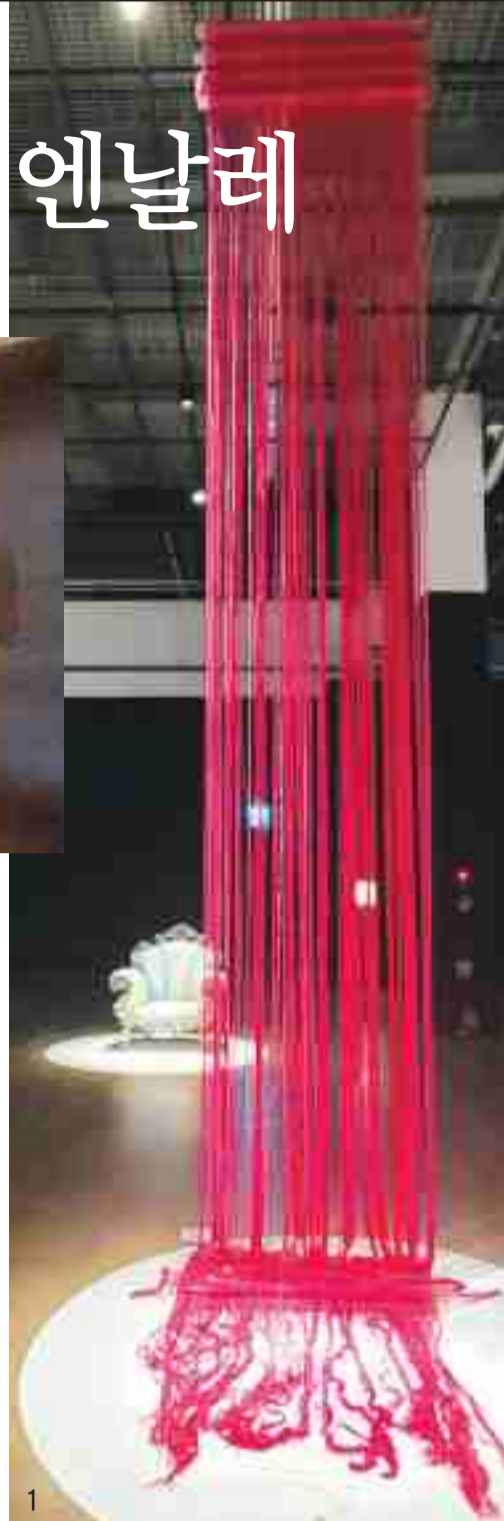
디지털 아트, 건축디자인,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공학 등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안수연·이대호·서주찬으로 구성된 TEAM SCI의 '마스크 미작용시(0)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역시 팬데믹 상황이 계기가 된 작품이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시대,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주제로 제작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관람자가 직접 마스크를 쓴 채 사진을 찍고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

송은성·양재희의 'Resonant voice'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공간과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관람객이 마이크 앞에서 박수를 치면 화면이 반응한다. 또 다른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은 가상 세계 내추럴 UI 플랫폼, 미래자율주행 차량 XR랩 등을 선보이고 있다.

그밖에 정정하 작가의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색상의 페인트와 건축용 재료를 통해 시각적 확장성의 요소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한편 지역산업관으로 꾸며진 5전시관에서는 광주에서 생산된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 한선주 작 '봄날은 온다'  
2. 정정하 작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 (부분)  
3. 광주과학기술원 안창욱 교수 연구팀이 제작한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의 음악을 만나는 'Peace of mind'

## 소프라노 김에셀 독창회

2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깊어가는 가을,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소프라노 김에셀(사진) 귀국 독창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화려한 음색과 기교를 느낄 수 있는 곡부터 몽환적인 화성과 선율의 노래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김에셀만의 섬세한 표현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프랑스 가곡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포레 '4개의 노래', 드뷔시 '별이 빛나는 밤', '밀꽃', '산들바람', 마스네 오페라 '신데렐라' 중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불러주는 아리아' 등을 선보인다. 2부 무대는 풀랑크 '기막힌 약혼', 토마 오페라 '햄릿' 중 '광란의 아리아' 등으로 구성됐다.

김에셀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세르지 푸투아즈 국립음악원 학사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프랑스, 홍콩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공연에는 프랑스 유학파 출신으로 현재 광주교육대, 전남예술고, 광주예술영재원에 출강 중인 피아니스트 이현주가 함께한다. 전석초대. 문의 010-2680-296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2~24일, 목포 국도1호선독립영화제

## 평화통일 기원, 사회적 약자의 시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작품부터 성소수자,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제 8회 목포 국도1호선독립영화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목포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비롯해 시네마라운지MM, 미술관카페 신형당 등에서 열린다.

영화제는 전남 유일의 독립영화제로 지난 2014년 독립·예술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들과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었다.

개막작은 허지은·이정호 감독의 '신기록', '해미를 찾아서', '고마운 사람' 등 3편이며, 이번 영화제에서는 200여 편에 달하는 공모작 중 약 25편의 장·단편 독립영화를 4개의 색션으로 나눠 상영한다.

4개의 색션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멀리뛰기'와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선을 담은 '장애물넘기', 처음 영화제에 출품하는 감독의 작품들이 모인 '도움닫기', 서울 외 지역에서 만

든 로컬 영화 중심의 '높이뛰기'로 구성되어 있다.

'멀리뛰기' 색션에서는 김후중 감독의 '꼬리'와 정혜성 감독의 '나는 남한을 사랑합니다'를 상영하며, '장애물넘기'에서는 홍지영 감독의 '괴물, 유령, 자유인', 이준혁 감독의 '그녀의 이별법', 한혜인 감독의 '보름이' 등을 선보인다.

'도움닫기'에서는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은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부정한 행위자'를 비롯해 '술', '오늘의 별점', '탈락한 자소서들입니다' 등을 상영한다.

'높이뛰기' 색션에서는 청소년을 하고 있는 김수와 박원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나랑 아니런', 농업 특성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농경사회', 지방청 승희가 저승사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으면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와이파이' 등을 볼 수 있다.

이번 영화제의 기조를 담은 특별 색션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죽은 땅이 된 양강을 배경으로

'신의 딸은 춤을 춘다'



한 권혁준 감독의 '낙진'을 상영하며, 폐막작으로는 자신의 '국가'가 아닌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조국의 의미를 전하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가 선정됐다.

아울러 영화제 기간동안 '환경'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 등과 관련한 영화 상영과 시네토크, 해안플로깅 체험 등도 진행된다. 상영작은 네이버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10-8347-666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미술품 수집·아트테크'

21~22일 문화재단 작은도서관

광주문화재단문화예술작은도서관이 오는 21~22일(오전 10시) '미술품 수집과 아트테크'를 주제로 강좌를 연다. 강사는 윤익(사진) 아트광주21 감독.



먼저 1강에서는 아트 컬렉션과 향후 경제적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아트테크를 분석해 목적에 맞는 방법을 들려준다.

2강 '미술품 수집과 아트테크의 성공 사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미술품 수집 관련 흥미로운 사례들을 토대로 유무형의 부가 가치를 설명한다.

윤익 감독은 전남대 미술학과와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Paris1대학 대학원 조형예술학 석사를 취득했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2020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총감독을 역임했다. 현재 아트광주21총감독이자 미술문화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10명 내외로 제한하며 수강료 무료.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 (062-670-7968)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



## 광주 '민주의 종'

관공기념품, 고급·일반형 구성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이 지난해 시제품으로 개발했던 광주관공기념품 '민주의 종(사진)'이 본격 출시됐다.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과 분수대를 소재로 제작된 '민주의 종'에는 종소리가 녹음된 칩이 부착돼 종을 들면 종소리가 나고 종을 내려놓으면 종소리가 멈추게 설계됐다.

민주의 종은 종소리가 부착된 고급형과 일반형 2종류로 만들어졌다.

특히 휴대폰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주의 종에 대한 유래와 함께 국문과 영문 설명서가 함께 담겨 있어 광주를 찾는 이들에게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40년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